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에 신탁재산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두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Candriam Equities L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Candriam Equities L Oncology Impact(이하 "피투자펀드")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펀드인 Candriam Equities L Oncology Impact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중대한 장기적 과제들 중 암과의 싸움이라는 특정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양학 분야(암 연구, 진단, 치료 등)의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시장 성과로부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할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선정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비재무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종목 선별을 수행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펀드와 함께 (또는 피투자펀드는) 수익 추구하고 아울러 특정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암과의 싸움에서 자원을 동원하는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고자 하며, Candriam의 ESG 리서치 및 분석을 기반으로 총 순자산의 75% 이상을 지속가능한 투자 자산에 투자합니다. 지속가능한 투자(Sustainable Investment)란 환경적 또는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투자가 환경적 또는 사회적 목적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투자대상 기업들이 건전한 지배구조 관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을 통한 외국통화 표시의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모두자신탁의 기초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활용하여 원/달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3억 원

- Eastspring Investments - Global Oncology Fund 9억 원

펀드유형 주식-재간접형, 모자형, 종류형
- 모두자신탁 편입비: 100% 이하
- 모두자신탁 집합투자증권 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23년 07월 17일)

- 클래스 A-E : 2023년 08월 01일

- 클래스 C-E : 2023년 07월 17일

- 클래스 C-F : 2023년 07월 17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23년 09월 14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23년 08월 02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2023년 07월 17일

벤치마크

MSCI World Health Care Index(USD) 95% + KBP Call 5%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월 증 환헤지 비중 91.7%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8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9영업일

투자위험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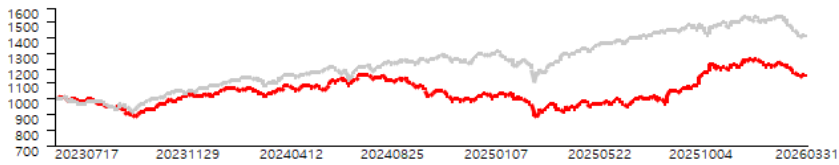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6.29%	-4.96%	16.06%	17.08%	7.71%	-	-	15.23%
클래스 A-E	-6.35%	-5.14%	15.64%	16.18%	6.04%	-	-	11.65%
클래스 C-E	-6.37%	-5.18%	15.54%	15.97%	5.67%	-	-	12.41%
클래스 C-F	-6.33%	-5.07%	15.79%	16.50%	6.64%	-	-	13.70%
클래스 C-P(퇴직연금)E	-6.35%	-5.13%	15.67%	16.25%	6.18%	-	-	16.11%
클래스 C-P2(연금저축)	-6.39%	-5.23%	15.42%	15.75%	5.24%	-	-	10.35%
클래스 C-P2(연금저축)E	-6.36%	-5.15%	15.62%	16.14%	5.97%	-	-	12.75%
벤치마크	-7.85%	-6.08%	-2.29%	15.27%	23.43%	-	-	41.13%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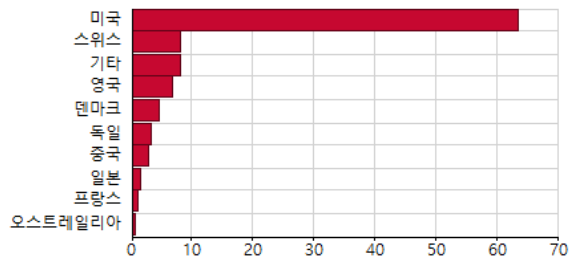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3월말, 피투자펀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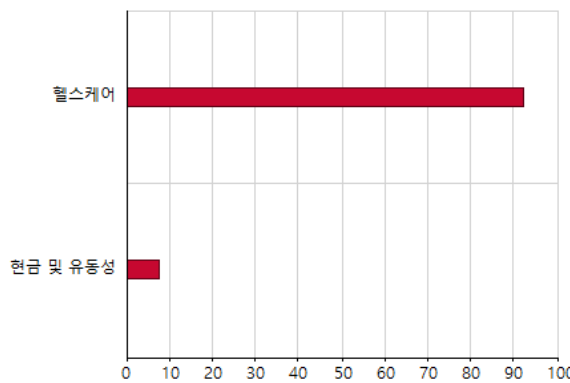
<국가별 비중>

순위	자산명	비중(%)
1	미국	63.7
2	스위스	8.1
3	기타	7.9
4	영국	6.7
5	덴마크	4.4
6	독일	3.2
7	중국	2.7
8	일본	1.4
9	프랑스	1.1
10	오스트레일리아	0.8



<자산배분 현황>

순위	자산명	비중(%)
1	헬스케어	92.1
2	현금 및 유동성	7.9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3월말, 피투자펀드 기준)

종목명	비중(%)
Eli Lilly & Co	6.7
Astrazeneca Plc	4.8
Novartis Ag-Reg	3.9
Merck & Co. Inc.	3.8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3.7
Mckesson Corp	3.1
Abbvie Inc	3.0
Gilead Sciences Inc	2.9
Pfizer Inc	2.8
Intuitive Surgical Inc	2.3

보수 및 수수료**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E : 총 연 0.79% (판매 0.325%)
- 클래스 C-E : 총 연 0.965% (판매 0.5%)
- 클래스 C-F : 총 연 0.495% (판매 0.03%)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0.71% (판매 0.245%)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155% (판매 0.69%)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총 연 0.81% (판매 0.345%)

(공통사항)

운용 0.42%, 신탁 0.03%,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 C-E, C-F, C-PE, C-P2, C-P2E: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3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과 이에 따른 에너지 공급 충격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전반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월초에는 시장 전반이 무차별적으로 조정을 받았으며 헬스케어 섹터 역시 매도 압력을 피하지 못하였으나, 월말로 갈수록 섹터 내 차별화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였지만, 대부분의 다른 섹터에서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펀드는 3월 동안 높은 비중의 바이오테크와 낮은 비중의 제약 및 의료기기, 그리고 시장 조정기 현금 보유 전략에 힘입어 MSCI World 헬스케어 지수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이오테크는 M&A 활동 증가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과를 기록한 반면, 의료기기 섹터는 하위 분야의 높은 경기 민감도를 반영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글로벌 주식시장은 3월 동안 상당한 조정을 받았으며, 헬스케어 섹터 역시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 것이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금리 충격에 대한 펀더멘털 민감도가 낮은 섹터와 하락 압력에 더 취약한 섹터 간의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펀더멘털 차이에 따라 헬스케어 섹터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전쟁 전개와 무관하게 현재 헬스케어 섹터는 밸류에이션과 성장 전망 측면에서 매력적인 수준에 있으며, 혁신과 구조적 수요에 의해 성장이 견인되는 국면입니다. 이에 펀드에서는 중앙학 특화 자산과 헬스케어 섹터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